

통한의 1초... 또 울어버린 '우생순'

여자 핸드볼 3-4위전

스페인에 2차 연장 끝 패배



"이런 경기는 정말 평생 못 잊습니다."

2004년 아테네올림픽 여자 핸드볼 결승에서 덴마크와 승부던지기까지 가는 명승부를 연출했던 임영철 인천시체육회 감독은 11일(현지시각) 영국 런던 올림픽파크 내 바스켓볼 아레나에서 열린 3-4위전이 끝나고 이렇게 말했다.

이번 대회 KBS 해설을 맡은 임 감독은 "내가 오죽하면 지금도 아테네올림픽 결승전은 다시 안 보겠느냐"며 아쉽게 패한 선수들의 가슴에 남을 상처를 걱정했다.

24-24로 팽팽히 맞선 후반 종료 4초 전 스페인의 베고나 페르난데스가 던진 슈트가 한국 골키퍼 주희의 선방에 막혔고 한국은 곧바로 질풍 같은 속공을 펼쳤다.

부상자가 많아 한 발짝 걸음 힘도 부족한 상황이었지만 이 한 골만 넣으면 동메달을 목에 걸 수 있다는 생각에 선수들은 앞으로 달리고 또 달렸다. 발 빠른 조효비가 상대 골문 앞에서 날아올라 던진 공은 그대로 스페인 골망을 갈랐고 강재원 감독은 이겼다는 생각에 필쩍필쩍 뛰었다.

그러나 심판의 판정은 노골이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골이 들어갔다는 것이었다. 1초만 더 있었더라면 그대로 경기를 마치고 행복한 웃음을 지을 수 있었을 터였다.

엔트리 14명 가운데 김은아, 정유라, 심해인은 올림픽 도중 다쳐 전력에서 이탈했고 김자연, 유은희의 몸 상태도 정상이 아니었



11일 오후(현지시각) 영국 런던 올림픽파크 바스켓볼 아레나에서 열린 2012 런던올림픽 여자 핸드볼 3,4위전 한국과 스페인의 경기에서 연장까지 가는 접전 끝에 29-31로 패한 선수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던 한국은 남은 선수들로 조별리그부터 8강, 4강을 거쳐 오느라 진이 빠질 대로 빠져 있었다.

전·후반 5분씩 10분을 뛰는 1차 연장은 악으로 버텼으나 2차 연장에 들어가면서 체력이 급격히 떨어졌다. 그래도 남은 힘을 쥐어짜내 7m 드로를 3개나 얻었지만 상대 골키퍼의 선방에 모두 막혔다.

마치 2004년 아테네올림픽 덴마크와의 결승전을 다시 보는 느낌이었다. 당시 한국은 2차 연장까지 비기고 결국 승부던지기에서 아쉽게 분투를 삼켰다.

그때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당시 '우생순 펌버'였던 우선희, 문경하, 김차연, 최임정을 비롯한 후배 선수들까지 하나도 팔팔 뭉쳐 저항했으나 결과는 8년 전과

다르지 않았다. 평소 같으면 힘든 경기를 치르고도 공동 취재구역에서 기자들의 질문 하나하나 끝까지 친절하게 답변하던 우선희도 이날 만큼은 그냥 지나쳤다.

조효비는 "이번이 마지막 올림픽인 언니들이 있어 메달을 꼭 따고 싶었는데"라며 말끝을 흐렸다. /연합뉴스

무관심... 눈물겨운 한국新

영암출신 박철성 50km 경보 3시간45분55초 13위

영암출신의 박철성(30·삼성전자)이 2012 런던올림픽 육상 남자 50km 경보에서 한국신기록을 작성했다.

박철성은 11일(현지시각) 런던에서 열린 경보 50km 레이스에서 3시간45분55초에 결승선을 통과하면서 한국신기록을 세웠다. 지난해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서 작성했던 자신의 종전 한국 기록을 1분 18초 앞당겼다.

금메달은 3시간35분59초의 대회 신기록을 쓴 러시아의 세르게이 키르디얏킨이 차지했다.

35km 구간까지 25위에 머물던 박철성은 45km 구간에서 17위로 올라선 뒤 13

위로 레이스를 마치는 뒷심을 발휘했다. 13번째로 골인했지만 런던 올림픽에 참가한 한국 육상 선수 중 가장 높은 순위였다.

도약종목의 지존 김덕현(27·광주시청)이 발목 부상 여파로 세단뛰기에서 예선탈락하는 등 트랙과 필드에서 예선을 통과한 선수는 나오지 않았다. 예선 없이 결선만 치르는 로드 레이스에서 박철성이 가장 좋은 성적을 냈다.

한편 박철성의 나주공고 후배인 임정현(25·삼성전자)은 3시간56분34초에 골인하며 34위에 랭크됐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박호진 선방 쇼...광주 FC 2연승

K리그 27R 제주에 2-0 승

전남 정해성 감독 사퇴

'말항' 박호진의 신들린 선방이 광주 FC의 2연승을 지켰다.

광주 FC가 지난 11일 제주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제주 유나이티드와의 K리그 27라운드 경기에서 공·수에서 제주를 압도하며 2-0 승리를 거뒀다. 앞선 상주와의 경기에서 9경기 만에 승리를 거뒀던 광주는 난적 제주까지 잡아내며 2연승에 성공했다.

골키퍼 박호진이 제주의 9개의 유효슈팅을 모두 막으며 골문을 굳게 지켰고, 김동섭·박기동이 각각 결승골과 썩기골을 넣으며 제주를 무너뜨렸다.

김동섭의 무서운 주축전이 펼쳐지던 후반 34분, 승리를 결정짓는 썩기골이 나왔다. 왼쪽에서 빠르게 치고 올라가던 이승기가 중앙에 있던 박기동에게 공을 넘겨줬고, 헤딩골이 이어지면서 제주의 골문이 뚫렸다. 전반기 부상으로 경기를 뛰지 못했던 박기동의 시즌 1호골이다.

광주를 대표하는 두 공격수의 멋진 한방

도 짜릿했지만 이날 경기의 백미는 수비였다.

팀의 '말항'인 골키퍼 박호진이 기적 같은 선방으로 제주를 울렸다. 특히 제주의 공격수 마르케스는 4개의 유효슈팅이 박호진에 막혀 땅을 쳤다.

전반 19분 마르케스의 슈팅을 막으며 활약을 예고한 박호진은 전반 32분 송진형의 슈팅을 발로 걷어내며 동점위기를 넘겼다. 박호진은 전반 38분에도 마르케스의 예리한 슈팅을 손을 뻗어 봉쇄했다.

후반 시작과 함께 마르케스가 다시 한번 골에 도전했지만 박호진의 선방은 계속됐다. 제주의 이날 슈팅은 21개, 광주를 위협하는 유효슈팅도 9개나 나왔지만 모두 박호진에게 걸리고 말았다.

박호진은 "대구와의 경기에서 1-0으로 이기다가 마지막에 내가 실수를 해서 비긴 적이 있다. 만회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잘해줬다는 얘기를 들어서 기분이 좋다. 잘한 것도 있고, 공이 와서 맞은 것도 있다"며 웃었다.

한편 전남 드래곤즈의 정해성 감독이 성적 부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지난 10일 자리에서 물러났다. 2010년 10월 부임한 정 감독은 전남이 지난 시즌 6강 플레이오프에서 탈락한 데 이어 올 시즌에도 최하위권을 달리면서 사퇴의사를 밝혔다.

/제주=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나주시 전국 중·고 사격대회 ... 202개팀 1800여명 출전

나주시 사격 열풍이 분다. 제38회 회장기 전국 중·고등학교 사격대회가 12일 개막해 오는 16일까지 나주 종합사격장에서 계속된다.

한국 중·고등학교 사격연맹(회장 김덕현)이 주최하고 전남 사격연맹(회장 임재수)이 주관하는 이번대회에는 202개팀 1800여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기량을 겨룬다. 회장기 대회를 치르는 나주는 제18회 전국 연합회장기 국민생활체육 전국사격대

회에 이어 오는 9월 4일부터 11일까지 제42회 전국 봉황기 사격대회까지 개최하면서 국내 사격 스포츠의 요람으로 자리매김했다.

또 나주에서 지난 7월 23일부터 사격 청소년 국가대표팀 50명이 하계 합숙훈련을 하고 있으며, 오는 16일부터는 사격 국가대표팀 78명이 26일간의 일정으로 강화훈련에 들어갈 예정이다.

/중부취재본부=손영철기자 ycsn@

김연경 '세계최고 공격수' 등극



런던올림픽 207득점 득점왕

한국 여자 배구 대표팀의 '대들보' 김연경(24·흥국생명)이 2012년 런던올림픽 여자 배구 득점왕에 등극하며 세계 최고의 공격수임을 입증했다.

김연경은 11일(현지시각) 여자 배구 3-4위전에서 일본을 상대로 팀내 최다인 22득점을 추가했다.

이로써 이번 올림픽에서 총 207득점을 올린 김연경은 미국의 주포 데스티니 후커(161득점)를 40점 이상 차이를 벌리며 여왕 공격 득점왕에 올랐다.

김연경은 공격 성공률에서도 1위 후커(37.93%), 2위 시모나 자울리(이탈리아·37.78%)에 이어 3위(35.57%)에 오르며 순도 높은 결정력을 과시했다.

키 192cm, 체중 73kg의 김연경은 큰 키에서 내리찍는 강력한 스파이크가 일품이다. 여기에 서브 부문 7위, 리시브 성공률에서는 9위를 차지할 정도로 강력한 서브와 안정적인 리시브, 블로킹까지 모든 면에서 최고의 선수로 평가받는다.

/연합뉴스

황경선 금빛 발차기

여자 태권도 2연패

한국 태권도 선수로는 처음으로 올림픽 2연패를 이룬 황경선(26·고양시청)의 소감 첫 마디는 "날아갈 것 같다"였다.

황경선은 지난 10일(현지시각) 열린 2012 런던올림픽 여자 67kg급 결승에서 누르타타르(터키)를 12-5로 꺾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4년 전 베이징올림픽 같은 체급에서도 똑같은 색의 메달을 가져왔던 황경선은 "베이징 때보다 조금 더 좋은 것 같다"고 밝혔다.

황경선은 베이징올림픽 8강에서 왼쪽 무릎을 다쳐 걷기조차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끝까지 참고 뛰여 결국 금메달을 거머쥐었다. 그는 "4년 전에는 많은 것을 보여드리지 못했다"면서 "이번 대회는 부상 없이 끝까지 제일 고맙다"고 말했다.

황경선은 결승 때 5-3으로 앞선 채 맞은 2라운드에서 왼발로 타타르의 얼굴을 가격했지만 점수가 올라가지 않자 비로소 오른쪽을 요격했다. 황경선은 경기를 비로소 막아내고 먼저 손짓을 했고 3득점을 인정받아 손쉽게 승리했다. /연합뉴스



황경선이 10일 오후(현지시각) 영국 런던 엑셀 아레나에서 열린 2012런던올림픽 태권도 여자 67kg급 결승에서 누르타타르(터키)에게 승리한 뒤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산행안내

해와 및 섬은 개개기 불가합니다. (육지만 가능)

- 8월 14일(화) ▲광주산행스케치 8월14일(화) 전북 안주 기차산(장군평) (양동계곡산행), 영주체육관 07:20 출발, 돌아오면 07:30, 상륙회관 07:40, 광주역 07:50, 문예회관 08:00 *다들카래: 광주산행스케치 (http://cafe.daum.net/MTSketch) T.011-634-0776
- 8월 15일(수) ▲광주도요산악회 풍연 연합회 8월15일(수) 6시30분 영주체육관(광주역, 비엔날레 주차장 경우) *다들카래: 광주도요산악회 참조 T.010-3608-4267, 010-3642-2849
- ▲광주청학산악회 경남 연합회 8월15일(수) 7시 50분 백운동 로타리 출발, 8시 교원공회전, 8시10분 예술회관후문, 8시20분 동광주역 *다들카래: 광주청학산악회 T.011-646-3450, 011-259-0284
- 8월 16일(목) ▲광주둘레길등호회 8월16일(목) 군산구불길(3코스), 7시30분 영주체육관, 7시40분 영주체육관, 7시40분 백운동 돌아오면 7시50분 광주역, 8시 문예회관 후문 *다들카래: 광주둘레길등호회 T.010-3608-9921
- ▲(화)광주서산악회 8월16일(목) 경남 현성산, 산행 및 수승대 유전자 관광, 운전현대산부인과 및 06:30

- 연주거리 06:33, 화정동 대주A 및 06:40, 백운동 로타리 06:50, 롯데백화점 앞 07:00, 동신고 앞 07:10, 문예회관 후문 07:25 T.010.4031.4401
- 8월 18일(토) ▲남도산사랑 8월18일(토) 월이산, 육천 6시30분롯데마트 월드컵점, 6시45분 시청주차장(전남, 7시 비엔날레주차장 *다들카래: 남도산사랑 T.010-4741-4433
- ▲광주금강산악회 8월18일(토) 밀양 연남 알프스 구민산악회 산행 (출발:밀양동구) 해태마트 앞 5시 20분, 영주체육관주차장 5시30분, 한국발전회 앞 5시40분, 문예회관후문 5시50분, 비엔날레주차장 6시 *다들카래: 광주금강산악회 T.011-629-2678
- ▲광주희망도요산악회 8월18일(토) 양봉 조망이 뛰어난 월봉산, 기암산, 영주체육관 07:30, 광주역 07:45, 비엔날레주차장 08시 *다들카래: 광주희망도요산악회 참조 T.010-9602-3925, 010-7750-7210
- ▲광주도요산악회 8월18일(토) 함양 독바위, 07:30분 영주체육관(광주역, 비엔날레 주차장) 경우 *다들카래: 광주도요산악회 참조 T.010-3608-4267, 010-3642-2849
- 8월 19일(일) ▲요산회 8월19일(일) 산정 마비살방 백운계곡 계곡트레킹 무가사 6시20분, 문예회관 6시25분, 광주역광장 6시40분, 동광주 총6시50분 *다들카래: 요산회 참조 T.010-5152-2629, 011-606-4366
- ▲광주한울산악회 8월19일(일) 경전 지방유산, 남광주농협 05:30, 문예회관후문 06:00, 비엔날레주차장 06:05 출발 *네이비카래: 한울 (http://cafe.naver.com/hanaill) T.011-625-5234, 010-4328-7700
- ▲광주한빛산악회 8월19일(일) 밀양 구민산, 불수공예국, 광주역 앞 06:40, 양양동(문예회관후문) 06:50, 비엔날레주차장 07:00 *다들카래: 광주한빛산악회 참조 T.010-3131-3580
- ▲광주희망도요산악회 8월19일(일) 단양 도박산, 해태마트 05:20, 남구의회 05:30, 영주체육관 05:40, 무가사 05:50, 문예회관 후문 06:00 *다들카래: 광주희망도요산악회 참조 T.010-3005-3009, 010-3603-2021
- ▲광주새마을산악회 8월19일(일) 거창 남덕유산 산악 트레킹(상계곡) 08:00, 광주역광장, 문예회관후문 08:10 경우 *다들카래: 새마을산악회 (http://cafe.daum.net/smsdan) T.011-616-6300, 010-3901-5667, 062-652-5512
- ▲광주도요산악회 8월19일(일) 지리산 칠선계곡 선바탕, 영주체육관 07:30, 양봉, 광주역 08:00, 두암동 출발로 08:00, 고서 08:30 (출발장소: 광주역 08:00) *다들카래: 광주도요산악회 참조 T.011-604-8611, 010-2607-2892
- ▲문흥백두산악회 8월19일(일) 거창 금원산 유안정계곡, 07:00 문흥동백두산악회, 07:05 부구미마을정원, 07:15 일곡동우재, 07:30 비엔날레주차장도로가(구 도교육청앞도로) *다들카래: 문흥백두산악회 T.011-602-2098
- 8월 22일(수) ▲광주청학산악회 8월22일(수) 경남 울진 울진5코스 8월22일(수) 7시30분 백운동 로타리 출발, 8시 교원공회전, 8시10분 예술회관후문, 8시20분 동광주역 *다들카래: 광주청학산악회 T.011-646-3450, 011-259-0284
- 8월 25일(토) ▲남도산사랑 8/25-26 태백산, 아침거리, 인제(1박2일) 4시30분, 롯데마트월드점점, 4시45분 시청주차장 건너편, 5시 비엔날레주차장 *다들카래: 남도산사랑 T.010-4741-4433
- 8월 26일(일) ▲광주도요산악회 영동 민주산(계곡산행) 8월26일(일) 봉선동 도이리배장 06:30, 동성역1번출구 06:40, 광천교로타리 06:45, 문예회관후문 06:55, 비엔날레주차장 07:00

- 8월 29일(수) ▲광주청학산악회 전남 구례 황산성 8월29일(수) 7시 50분 백운동 로타리 출발, 8시 교원공회전, 8시10분 예술회관후문, 8시20분 동광주역 *다들카래: 광주청학산악회 T.011-646-3450, 011-259-0284
- 9월 1일(일) ▲광주금강산악회 9월1일(일) 경북 상주시, 문경시, 도장산 정상, 울진(전월출)해태마트앞 5시20, 영주체육관주차장 5시30, 한국발전회 앞 5시40, 문예회관후문 5시50, 비엔날레주차장 6시 *다들카래: 광주금강산악회 T.011-629-2678
- 9월 2일(일) ▲빛고을무지개산악회 평창 도박산 9월02일(일) 06시 영주체육관, 20분 학동, 중성사구우지하터널 3분출구, 35분 광주역, 45분 문예회관후문, 55분 동광주역로타리 *다들카래: 빛고을무지개산악회 T.011-620-2002
- 9월 16일(일) ▲빛고을무지개산악회 단양 도박산 9월16일(일) 06시 영주체육관, 20분 학동, 중성사구우지하터널 3분출구, 35분 광주역, 45분 문예회관후문, 55분 동광주역로타리 *다들카래: 빛고을무지개산악회 T.011-620-2002

ISO 9001, ISO 14001 품질인증
심사 및 컨설팅 전문
 ICR 국제 품질인증원에서
 귀사의 발전을 도와드립니다.
상담전화 010-2932-9099

스타 색소폰 연구회 회원모집
회원자격
 색소폰 배우고 싶은 사람
 남녀노소 누구나
주요강사 이경재
 경력·부경대학교 음악대학
 ·미8군 예하부대 연주단
 ·안도현 청소년악단장
초청강사: 김세종(전 중교음악교사)
수강종목
 테너, 알토, 소프라노
 서구 화정 3동 825-13 지하1층
H.P.010-3376-9285/010-7753-1918

광주일보 창사60주년 기념 임용길 대장과 함께하는
밀레 '한국명산 16좌 원정대' 모집

- ▶참가신청: 광주/전라지역 밀레 매장에서 접수 (자세한 사항은 밀레 매장 혹은 www.millet.co.kr)
- ▶참가특전: 참여하신 모든분께 밀레 기념품 증정

내년매출 신화 8월 24일(금) / 민주지산
 *일정 및 산행루트는 기상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주)밀레 마케팅부서 (02-3153-3143, 4)
 주최 | MILLET | 주관 | Mtour
 후원 | 광주일보사

수익성 최상원룸 임대

- 2억8천만원 매매가 월500만원 수입!
- 신규 리모델링 원룸 17개 (상하방 별도, 공용실 무)
- 지하 1층 지상 4층(453m²)

T. 010-2659-9230

전기공사업[분할합병] 공고
(채권자의 및 주권제출공고)

제이에스산업(주)(이하 "갑"이라함) 과 (주)정우이엔지(이하 "을"이라함)는 각2012년08월10일 임시주주총회의 결의로 "을"의 그 재산(영업의 일부(전기공사업부분)을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분과 "갑"이 합병하고 "을"은 존속하기로 하였으며, 합병5302호 제2항에 의거하여 "을"은 "갑"과 "을"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특히 POSCO ICT와 관계된 모든 영업권, 지식재산권, 완공된 공사 및 진행중인공사의 모든 계약 및 하자보수에 대한 권리와 의무)포함은 "갑"이 승계하기로 결의하였기에 이 분할합병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 공고 게재일 및일부터 1개월 이내에 관계회사에 이의를 제출하고 주주는 주권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의가 없으면 분할합병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함을 공고 하고 회고합니다.

—아 래—
 1. 양도(분할합병)대상 전기공사업 종류: 제정남 - 00879호
 2. 양도(분할합병)예정일: 2012년 09월 15일
 3. 이해관계인의견제출 기한: 2012년 08월 13일 ~ 2012년 09월 12일
 4.(갑) 상 호: 제이에스산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 준
 주 소: 전남 광양시 마동 1103-5
 5.(을) 상 호: 주식회사 정우이엔지
 대표이사: 김 종 열
 주 소: 전남 광양시 마동 1115-1
 2012년 08월 13일

상속한정승인 공고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사건번호: 2012-단615
 사 방 자: 유환형(610702-1634320)
 최종주소: 순천시 해동면 호두리 2
 등록기준지: 순천시 해동면 호두리 56
 위 망 유환형의 상속에 대하여 상속인은 민법 제1028조에 따라 한정승인 하였으므로 민법 제1032조(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 그리고 유환형의 부처에 다음과 같이 공고한 신고(친고)로써 2개월 이내에 채권 또는 신고를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2012년 08월 13일
 공 고 인: 유민, 유진상
 한정승인승리일: 2012년 08월 08일
 공고기간: 2012. 08. 13-2012. 10. 12
 신 고 처: 유민(010-3615-7214)

분할합병 및 주권제출에 관한 공고

대한전선(주) [갑]와 (주)전선전력 [을]은 2012년 08월 06일 각사의 임시주주총회 결의로 "갑"이 그 영업의 일부인 전기공사업부분을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분과 "을"이 합병하고, "갑"과 "을"은 존속하기로 하며, "갑"은 분할합병에 승인하여 자본금 5,000,000,000원 감소하고(주식분할에 의한 감소) "을"은 자본금 5,000,000,000원을 증가하며, 합병 제 5302호 제 2항의 결의결과를 받아 출자사외의 채주는 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분할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 공고 게재일 및부터 1개월 이내에 관계 회사로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또한 각사의 주주는 해당사에 주권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이에 공고함.

2012년 08월 13일
 "갑" 주 소: 대한전선(주) 서구 만동동 975
 대 표 이 사: 대 한 전 력 (주)
 대 표 이 사 장: 대 동
 "을" 주 소: 전선전력(주) 동원면 신성로 67-5
 대 표 이 사: 전 선 전 력 (주)
 대 표 이 사 장: 전 언